

외부 공연단체 스태프 대상 소속 직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사과문

영등포문화재단은 지난 8월 6일 아래 사과문의 내용과 같이 본 재단과 외부단체가 공동기획한 공연을 위해 무대 작업을 하던 외부단체 스태프에 대한 본 재단 소속 무대감독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고, 8월25일 해당 외부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가와 공연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의 해당 발언이 의심의 여지 없는 성희롱임을 확인하였으며, 재단 규정에 따라 가해자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의결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1개월의 감봉'과 가해자가 속한 팀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성폭력 예방과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세 차례 이상의 전문가 상담과 교육 이수 후 사과문 제출'을 대표이사의 명령으로 지시했습니다.

좋은 공연과 행사를 위해 노력하는 공연단체와 소속 스태프, 무엇보다 피해자분이 재단 소속 직원의 성희롱 발언으로 상처를 입고 불편한 상황에 처하도록, 성인지 감수성 기반 협력적 소통을 위한 재단 대표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단의 여러 사업에서 재단 소속 임직원들에 의한 외부협력단체와 소속 실무자를 향한 성희롱 등의 위계적 언행이 발생 될 수 있는 지점들을 면밀히 살피고, 재단의 외부협력 업무에 대한 외부단체 대상의 '업무협력 만족도 및 개선 의견 조사' 등의 실시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외부단체가 재단과의 업무 관계에 있어 계획하고 준비한 공연과 행사를 최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성희롱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소속 단체 스태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과 성희롱·성폭력 없는 재단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재

사과문

이름 : 한정민

소속 :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직책 : 무대감독

상기 본인은 2020년 8월 6일 20시부터 20시 30분 사이, 영등포아트홀에서 기획공연을 위해 무대작업을 하던 「창작집단 LAS」의 무대 스태프에게 상처가 되는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이 발언이 수반하는 폭력성에 대해 LAS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기 전까지 알지 못할 만큼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잘못된 발언으로 당사자와 현장에 있던 여러 스태프들에게 불쾌함과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재 재단의 조치에 따라 성폭력 예방과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저의 발언과 행동이 불필요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인지했으며, 다시는 이러한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다짐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문화재단의 무대감독으로서, 외부공연단체가 영등포아트홀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공연과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우호적 소통과 협력 관계 기반의 제작환경의 중요성을 통감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증진해 가겠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불쾌하셨던 모든 분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